

부단한 자아개발로 완벽한 '환경관리'에 도전한다

■ 편집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폐수’는 이것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가 최적의 상태로 정화해야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전가할수 없는 우리의 임무아닙니까?”

올해 제3회 환경관리장에서 금장을 따낸 권찬홍환경관리인은 얼마전 자신이 맡고 있는 인천협의회 식품분과위원회에서 펴낸 책자를 펼쳐보이며, 철저

한 프로근성을 유감없이 표현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딘 지난 '80년 가을, 이곳 동서식품주식회사에 몸담으면서 환경분야에 입문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나선 것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 사연이 별나다.

꼭 합격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시험을 치르곤 했지만 4번이나 쓴잔을 마신것이다. 수질2급시험에 연거푸 실패한 권관리인은

3일의 휴가를 얻어 독서실에서 책과 씨름, “수질1급 자격증 취득”이라는 한판 승부에서 깨끗한 승리를 거뒀다.

“그런 과거(?)덕도 봤어요. 항상 책을 놓지 않았고, 실무와 이론을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폐수처리작업 표준지침서 등을 만들 때 큰 도움을 받았지요.”

폐수처리장작업표준 지침서 외에도 그는 사내 TQC경진대회에서 장려상, T.P.M우수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폐수처리장 정상운동을 위한 각종 DATA의 실험·정리에도 많은 실적을 올렸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법정교육수료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으며, 협의회주최 환경관리개선 사례발표때엔 우수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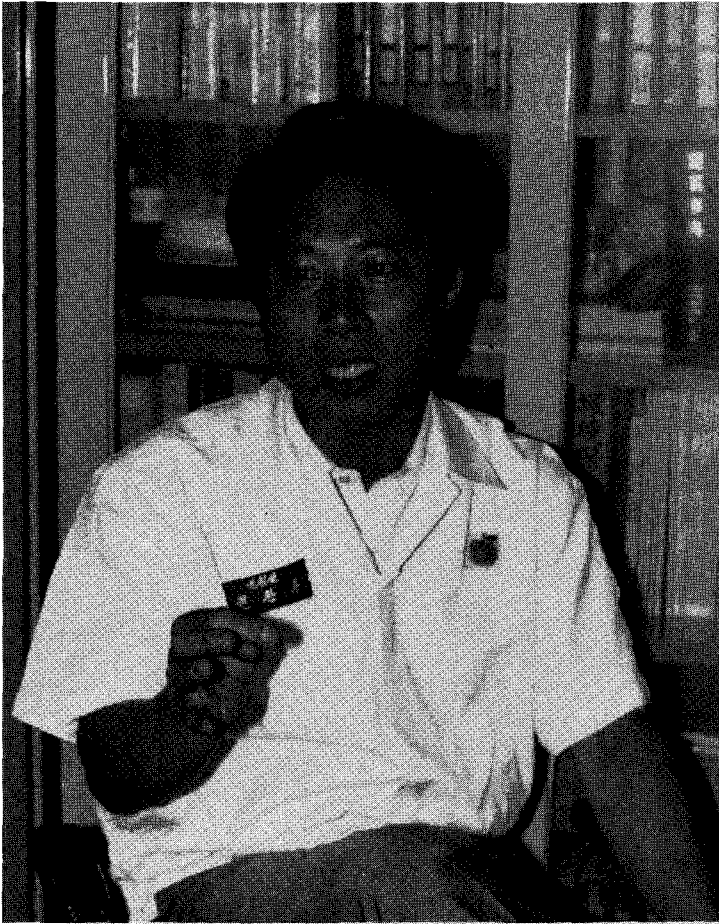
이번 환경관리장 금장 수상은 그의 행적을 가늠해준 시금석이기에 충분할 것 같다.

“금장 수상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받고, 곧바로 고향(경북영덕)에 계시는 어머님께 전화를 올렸습니다. 무척 기뻐하시네요”

권관리인은 수상소감을 묻

▼지난 6월 4일 환경관리장 시상식에서 협의회 회원들과.





그는 이제 같은 회사의 동료사원이면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폐수'를 처리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백안시 당했던 한때의 기억도 웃으며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대신했다. 수상후 상장은 물론 메달까지 복사해 어머니께 보내드렸더니, 동네 잔치를 벌이셨다며 웃었다.

정작 자신은 지금껏 상택을 못냈는데 말이다. 회사가 파업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업이 정상화되면 마음가볍게 한턱 낼 각오가 되어있단다.

“회사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고, 관리인의 의식이 확실하다면 기업의 오염배출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관리인들은 야당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환경문제에 대해 때론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아야 하니까요. 물론 지식도 풍부해야하죠.

그래야 회사쪽에 이래저래하면 오염농도가 저하된다는가 혹

은 생산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 등을 얘기하고 납득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는 관리인 스스로가 많이 알아야 그 임무를 다할수 있고, 임무를 다한 연후에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역설한다. 식품분과위원장을 맡은 것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관리인끼리 모여 애로사항과 좋은 기술을 나누면 훨씬 쉽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둔 효과도 컸다고 말하는 권관리인은 70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있는 이 분과위원회의 활성화에 더욱 주력할 계획임도 밝혔다.

그와 얘기하는 순간마다, 빈틈없고 야무져보이는 인상과 매사 자로 쟀 듯 치밀하다는 동료들의 귀뜸이 척척 맞아떨어진다.

그는 이제 같은 회사의 동료사원이면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폐수'를 처리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백안시 당했던 한때의 기억도 웃으며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기전에 우선 깨끗한 마음 갖는것을 삶의 신조로 삼고 있다는 권관리인의 희망사항은 기술사 자격증 취득. 까무잡잡한 얼굴, 조깅과 싸이클로 단련된 다부진 체격이 아니더라도 그는 이미 건강한 사람이다.

억척스럽게 그러나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삶과 일을 펼치고 있는 이 건강하고 젊은 환경인이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